

간은 몸 속 '해독공장' ...일상으로 복귀할 치료법은

간 8개 구역으로 나눠 수술하면 합병증 위험 줄어
초기면 간이식 성공률 높아...환자 80%대 간경화증



간질환

간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간암은 암 발생률이 국내에서 다섯 번째이지만, 사망률은 폐암 다음으로 높다. 예후가 나쁜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병이다.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몸에 필요

한 단백질과 효소, 비타민 등을 합성하고, 해로운 물질의 해독 작용도 담당한다.

3000억 개가 넘는 세포로 만들어진 간은 몸속 화학공장이자 수문장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인체 장기 중 가장 크고 무게는 성인을 기준으로 1.2~1.5kg에 이른다. 하지만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간암으로 발전한다. 간암 환자 10

명 중 8명은 확진 전에 간경화증을 앓는다.

간경화는 간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딱딱하게 굳어 기능을 상실하는 질환이다. 크기가 작고 초기에 발견한 간암이라도 간경화가 많이 진행됐다면 예후가 나쁘다. 이런 환자들은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간절제술은 간암의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종양에서 떨어진 부위까지 잘라냈지만, 최근에는 간 구조에 따라 8개 세부 구역으로 나눠 수술을 진행한다. 이로 인해 간절제술을 받고도 합병증 및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대부분 간암 환자는 간경화를 동반하고 있으므로, 간 이식도 고려할 수 있다. 간 이식은 뇌사자와 생체 수술로 나뉜다. 뇌사자 간 이식은 간 전체를 이식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능이 저하된 장기를 얻게 된다. 반면 생체 간 이식은 공여자의 간 일부를 기증받는 형태다. 간의 크기가 작지



만 장기 상태가 좋은 게 장점이다.

간 이식은 초기 간암이면 예후가 더 좋다. 초기 간암은 종양이 하나라면 직경이 5cm 이하, 여러 개인 경우에는 3개 이하면서 각각의 크기가 3cm 이하이어야 한다. 또 주요 혈관에 종양이 침범하지 않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아

야 초기로 분류한다.

최근에는 일차적으로 화학색전술, 고주파 소작술이나 간절제술을 우선 시행하고, 재발하면 간이식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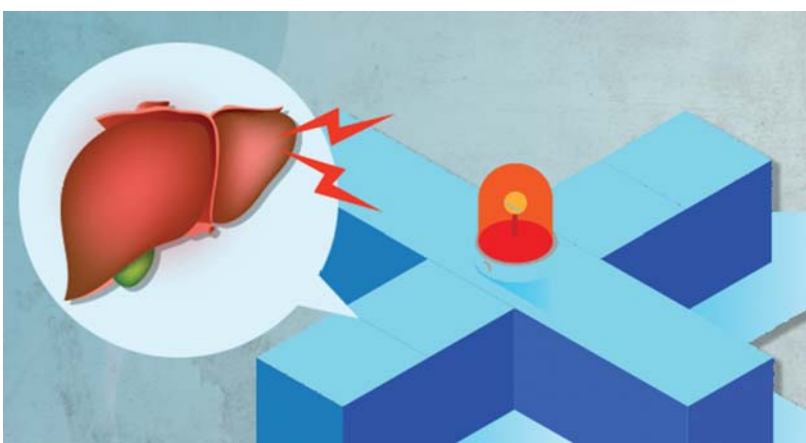
안철수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교수는 "간은 신체 장기 중 가장 빠르게 재생되며, 공

여자와 수혜자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3개월 내 간이 정상적인 크기로 자라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식이조절과 운동요법을 동반하면 80% 이상의 간이식 환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1

'위생의 역설'...A형간염 환자 5% 급성간부전 걸린다

발병하면 중환자실 치료·생체 간이식이 치료법



급성 간부전은 환자가 특정한 나빠지는 질환이다. 예후는 발병 원인에 의해 급격하게 간 상태가

원인과 경과에 따라 조금씩 다르

지만,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50~80%의 환자들이 한 달 안에 사망한다.

이 질환은 황달과 혈액이 굳는 증상만 나타나는 급성 간염과 다르다. 급성 간염은 의식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서다. 급성 간부전이나 전격성 간부전, 전격성 간염 모두 같은 질환을 가리키지만, 최근에는 의학적으로 급성 간부전으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다.

급성 간부전이 생기는 원인은 국가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서구권에서는 자살을 목적으로 아세트아미

노펜(타이레놀 등) 제제를 과다하게 복용한 게 전체 원인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가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는 발병 원인의 3분의 1이 B형간염이다. B형간염은 급성으로 감염된 경우보다 만성 간염에서 중증으로 발전한 경우가 더 많다. 최근에는 급성 A형간염으로 인한 젊은 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환자 생존율도 발병 원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나 A형간염이 원인 이면 간 이식을 하지 않아도 50% 이상이 생존하는 반면 B형간염이나 약제에 의한 경우는 80%가 숨

진다.

임영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A형 간염에 의한 급성 간부전이 증가하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며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성인들이 황체가 없는 게 이유고, A형간염 환자 5%가 급성 간부전을 앓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질환을 치료하려면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급성 간부전 환자들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B형간염과 결핵 치료제, 소염진통제, 항경련제 등의 약제가 발병 원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사망률이 80%

에 육박한다.

우리나라처럼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턱없이 부족한 곳에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간을 기증받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서울아산병원이 최근 3년6개월 동안 진단한 급성 간부전 환자 110명 중 44명이 응급으로 간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그중 40명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간을 기증받았다.

임영석 교수는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하거나 급성 A형간염 등이 원인인 간암 환자는 비교적 예후가 좋다"며 "환자 경과에 따라 간 이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